노사발전재단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4.(화) 18:30 (2026. 11. 25.(수) 조간)

㈜케이프라이드, 2026년 상생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경진대회를 통해 상생파트너십 우수모델 발굴・확산 기회 마련-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24일(화) 여의도 T-아트홀에서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사가 본선에 진출하여 그간의 상생협력 활동 및 성과 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심사항목은 △사업목적 및 성과적합성 △노사협력 기여 정도 △벤치마킹 활용 가능성 △혁신성·참신성 △수행 계획의 충실성 등 총 5항목으로,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 5인의 1차 서류 심사에 이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평가·선정하였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1개소) 및 우수(3개소) 사례로 선정된 4개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나머지 6개소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장려상)이 포상금, 인증패와 함께 수여되었으며 수상한 10개소 모두 상생파트너십 우수사례집에 수록되어 상생파트너십 확산을 위한 모범 모델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수상기업 상세>

(최우수상 1개사)	주식회사 케이프라이드
(우 수 상 3개사)	전주페이퍼, ㈜국순당, ㈜한국가스기술공사
(장 려 상 6개사)	주식회사 콤스코투게더, 솔브레인㈜,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광주교통공사,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 전국철강산업노동조합협의회

이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케이프라이드는,

([최우수상]) ㈜케이프라이드(중소 부문)는 84%가 현장직인 육가공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환경 개선, 안전기반의 노동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K-안전 클래스 교육, 근로자 주도의 '아차사고 발굴단' 등을 운영, 20건의 위험 요소를 즉시 개선하고 AI 안전 제안 우수사례를 선정·도입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나아가 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인 ㈜케이펙의 장애인 근로자들 의견을 반영한 직무 재설계를 통해 신규 적합 직무(운전기사, 검수 등)에 6명을 채용하였으며 사업 착수 이후 산재 0건이라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중 우수상을 수상한 전주페이퍼, ㈜국순당,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우수상]) 전주페이퍼(중소 부문)는 사업장 매각·인수, 비상경영 위기 등 3개년에 걸친 이슈로 인한 노사간 갈등과 대립을 종결하고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 예방, 산업안전 공동대응, 소통 교류 등의 주제로 10대 핵심 프로그램을 선정, 수행하였다. 노사 협의로 정기채용 방식을 상시채용으로 개정하여 조직 안정을 꾀하고, 협력사와 함께하는 '매일 안전순찰' 및 사내 IT 협업을 통한 AI 안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노사협력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올해 경영 흑자 전환 등 복합적 위기·갈등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우수상]) ㈜국순당(중소 부문)은 '원·하청'이 아닌 '협력 파트너사'로 호칭을 바꾸고, 복리후생 확대·정례 소통·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을 담은 '원·협력 파트너사 상생협력 합의문'을 마련하며 한 울타리 상생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노사 복지·안전 간담회를 통해 35건의 현장 의견을 모두 조치하였으며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갈등예방·소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노사 상생 공동결의문을 통해 소통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협력사·다음 세대로의 확장이 가능한 ‘처우의 지속·고용의 안정·소통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상]) ㈜한국가스기술공사(공공 부문)는 현장소통 청년참여/노사협력 전문역량/행복일터 사회책임이라는 3대 분야에서 청년리더 양성/소수노조

상생/원하청 동반성장 등 10개 프로그램을 수행, 현장의 목소리를 노사 공동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장소통 11개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중이며, 소수노조 설립 후 최초의 노사 상생워크숍을 진행하고, 협력기업 22개사와 동반성장 상생선언을 실시하는 등 '협력은 제도로, 현장 존중은 실천으로, 신입 정착은 세대순환으로'를 모토로 상생파트너십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산업전환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위기 속에서 노사가 하나 되어 상생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모델들이 산업 현장 전반으로 널리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사업장 내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을 신설하여, 사업장 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파트너십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매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공모・심사하여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올해 총 208개 사업장(코칭 105곳, 재정지원 103곳)을 선정하였다.

붙임. 상생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책임자	팀 장	김정희 (02-6021-1050)
		담당자	과 장	서영준 (02-6021-106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상생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구분	기업명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주식회사 케이프라이드
우수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전주페이퍼
	㈜국순당
	㈜한국가스기술공사
장려상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주식회사 콤스코투게더
	솔브레인㈜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광주교통공사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
	전국철강산업노동조합협의회